



numbers
vol. 243

한국인의 우울·자살·죽음 인식

우리 국민, 죽은 후 남기고 싶은 것 '화목한 가정' 51%!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한국인의 임신중단(낙태) 인식
- ② 22대 국회 역할 수행 전망

[넘버즈 칼럼]

목사 후보생 감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4. 6. 11.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 국민, 죽은 후 남기고 싶은 것 ‘화목한 가정’ 51%!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정신과 질병은 ‘우울증’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병하기 때문에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린다. 우울증의 감정 상태는 마음의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끼는 ‘우울감’이다. 이러한 무감각, 무관심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해 비관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깊은 절망은 자칫 죽음까지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울증은 저절로 낫는 ‘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질환’이다.

이번 넘버즈에서는 우리 국민의 우울과 자살, 죽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목할만한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3명 중 1명 이상(36%)이 ‘요즘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고, 절반 가까이(47%)가 요즘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죽음 후 남기고 싶은 것으로 ‘화목한 가정’(51%)이 가장 높아 죽음에 앞서 가정의 소중함을 높이 생각하고 있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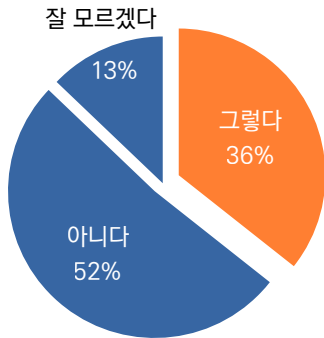
01

[우울 인식] 나는 요즘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 36%!

- 정신 건강 지표 중 하나인 우울감 수준을 확인하고자 '나는 요즘 우울감 등을 많이 느낀다'는 문장을 제시하고 동의율을 물었다. 그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1명 이상(36%)이 '요즘 우울감 등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림] 우울감 인식 (일반 국민)

나는 요즘 우울감 등을 많이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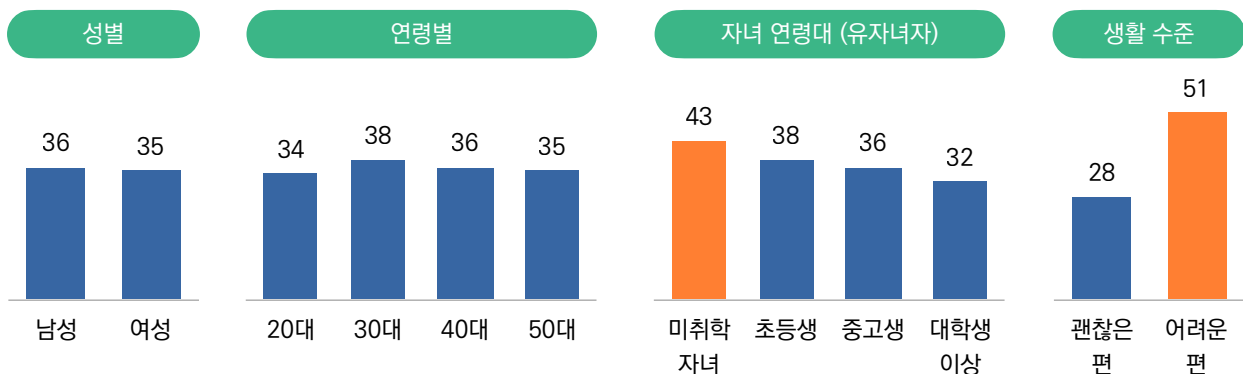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 2023.07. (전국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7.05.~07.07.)

자녀가 어리거나, 생활이 어려울수록 우울감 느끼는 비율 높아!

- 그렇다면 누가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까? 성별이나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어 우울감은 남녀 모든 연령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감정임이 확인되었다.
- 다만 자녀의 연령대와 생활 수준은 우울감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의 경우 자녀가 어릴수록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생활 수준이 '어려운'(51%) 응답자가 '괜찮은'(28%) 응답자보다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그림] 우울감 인식 (일반 국민, 인구 특성별, '요즘 우울감 많이 느낀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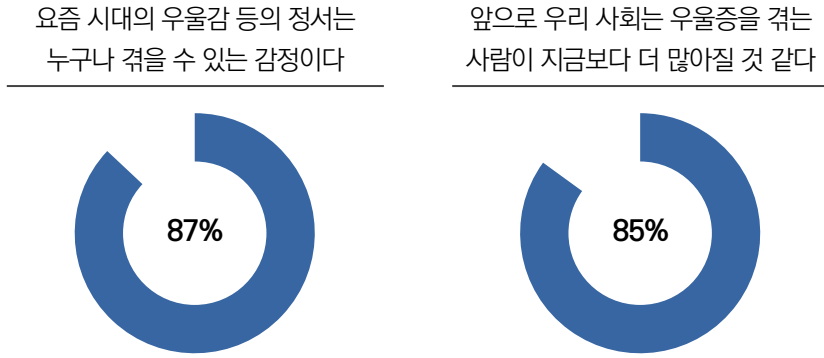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 2023.07. (전국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7.05.~07.07.)

우리 국민 대부분, '앞으로 우리 사회 우울증 겪는 사람 더 많아질 것'!

- 이번에는 '우울에 관한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을 물었다. '요즘 시대의 우울감 등의 정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이다'에는 우리 국민 대다수(87%)가 동의했다.
- 또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 같다'에도 85%가 동의해 '요즘 시대'에 우울은 '우리 사회' 만연하게 퍼져있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최근 사회적 우울감 체감도 (일반 국민, '그렇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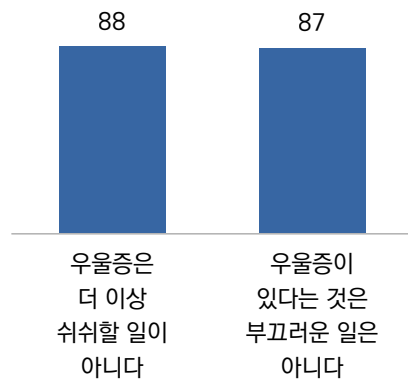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 2023.07. (전국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7.05.~0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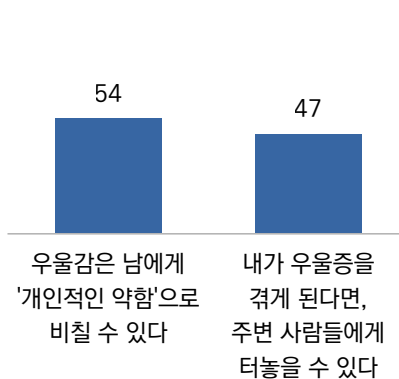
우울증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나의 우울은 감추고 싶어!

- 우울증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나의 우울에 대한 타인의 시선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사 결과, '우울증은 더 이상 쉬쉬할 일이 아니다'(88%),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87%)에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우울에 대한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우울감은 남에게 개인적 약함으로 비칠 수 있다'에 대해 절반(54%) 이상이, '내가 우울증을 겪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터놓을 수 있다'에 대해서는 절반에 못 미쳐 (47%) 우울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일반 국민, '그렇다' 비율, %)



[그림] 우울증에 대한 타인의 시선 인식 (일반 국민,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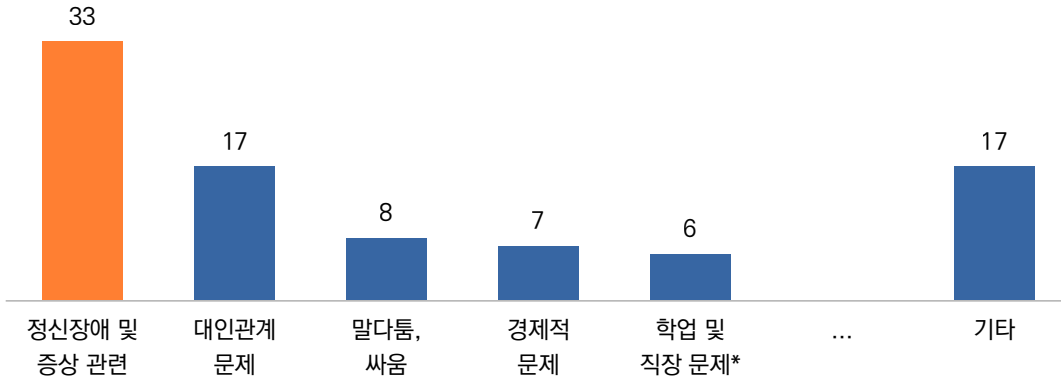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 2023.07. (전국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7.05.~07.07.)

자살 시도의 가장 큰 동기, 정신장애!

- 그렇다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는 자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2023년 한 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 시도자의 동기를 파악해 보니 '정신장애 및 증상 관련'이 3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대인관계 문제'(17%)가 뒤를 이었다.

[그림] 자살 시도 동기 (자살 시도자, %)



※출처: 보건복지부, '2023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2023.12.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30,665명, 2023.01.01.~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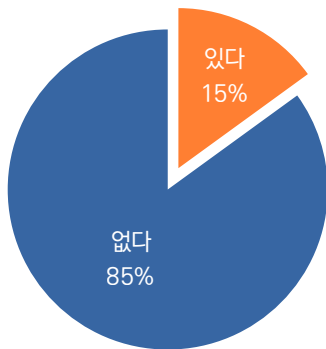
*성적, 입시, 취업, 승진 등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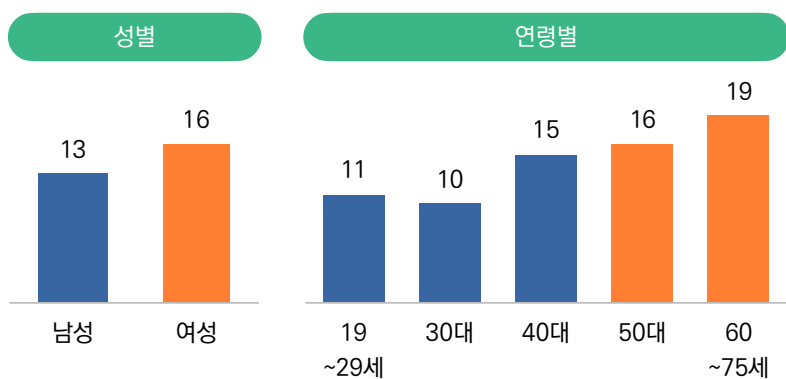
[자살 인식] 우리 국민, '자살 생각한 적 있다' 15%!

- 앞의 '우울'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살의 동기로 '우울증'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자살'에 대한 국민 인식도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서 5년마다 자살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국민 중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즉 '자살 생각 경험자 비율'은 15%로 나타났다.
- 자살 생각 경험은 여성(16%)이 남성(13%)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자살 생각 경험률 (일반 국민)



[그림] 성·연령별 자살 생각 경험률 (일반 국민,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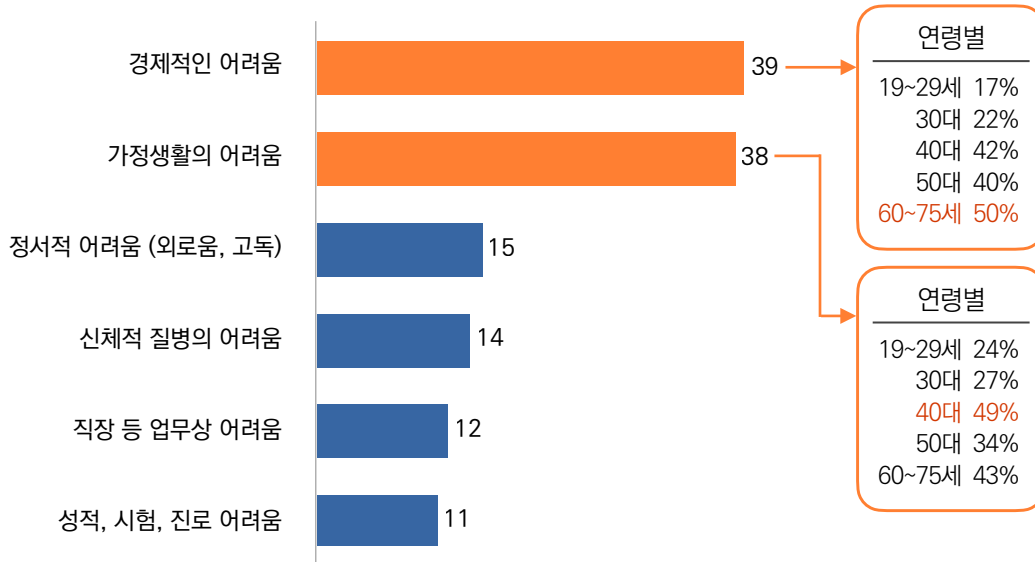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2023 자살실태조사'. 2023.12. (전국 만 19~75살 국민 2,807명, 면접조사, 한국리서치, 2023.08.25.~10.08.)

자살을 생각한 이유, 경제와 가정생활의 어려움!

- 자살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살 생각 경험자에게 묻은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39%)과 '가정생활의 어려움'(38%)을 가장 높게 꼽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경우 60~75세(50%)의 고령층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정생활의 어려움'은 40대(49%)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우리 사회 40대 삶의 고단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림] 자살 생각 이유 (자살 생각 경험자, 1+2순위,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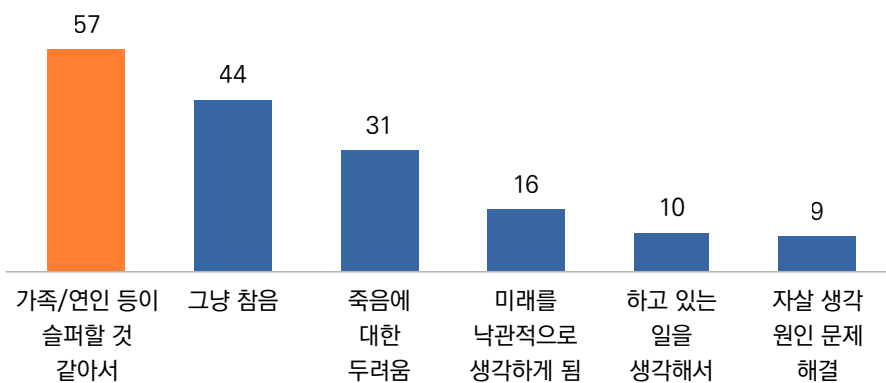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2023 자살실태조사'. 2023.12. (전국 만 19~75살 국민 2,807명, 면접조사, 한국리서치, 2023.08.25.~10.08.)

자살 생각 경험자,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며 극복!

- 자살 생각 경험자들의 자살 생각 극복 동기를 묻은 결과, '가족이나 연인 등이 슬퍼할 것 같아서'가 57%로 가장 높았다. 가족/연인 등 가까운 사람이 받을 상실과 고통에 대한 염려가 자살 생각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 다음으로 '그냥 참음'도 44%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위한 관심과 조치가 요구된다.

[그림] 자살 생각 극복 동기 (자살 생각 경험자, 1+2순위,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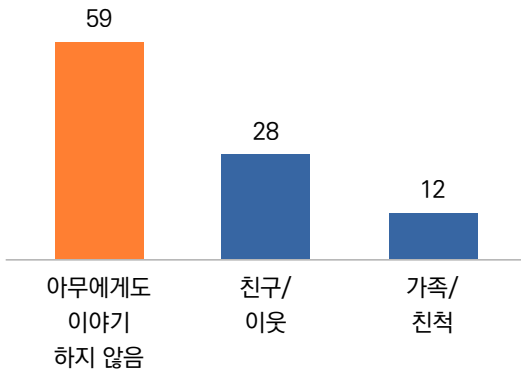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2023 자살실태조사'. 2023.12. (전국 만 19~75살 국민 2,807명, 면접조사, 한국리서치, 2023.08.25.~10.08.)

자살 생각 경험자 10명 중 6명, 아무에게도 도움 요청하지 않아!

- 자살 생각 경험자에게 자살 생각 시 도움을 요청한 대상을 물었더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음'이 59%로 가장 높았고, '친구/이웃' 28%, '가족/친척' 12%가 그 뒤를 이었다. '자살 생각 경험자' 10명 중 6명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셈이다.

[그림] 자살 생각 시 도움 요청 대상 (자살 생각 경험자, 중복응답, 상위 3위, %)



※출처: 보건복지부, '2023 자살실태조사', 2023.12. (전국 만 19~75살 국민 2,807명, 면접조사, 한국리서치, 2023.08.25.~1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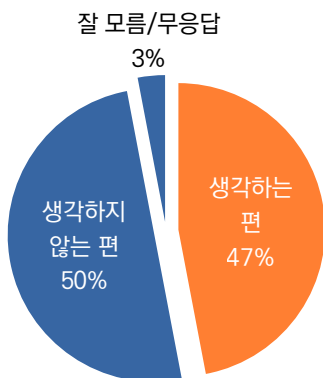
03

[죽음 인식]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 요즘 죽음에 대해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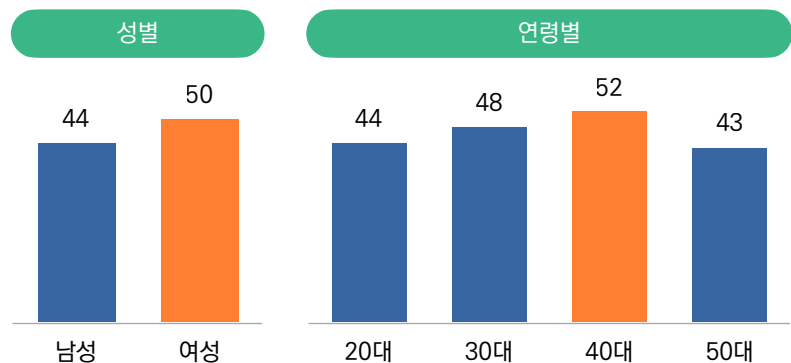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은 '죽음'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죽음에 대해 요즘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47%)가 '생각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44%)보다는 여성(50%)이, 연령별로는 40대(52%)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요즘 죽음에 대한 생각* (일반 국민)



[그림] 요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

('매우 자주+이따금씩 생각한다' 비율,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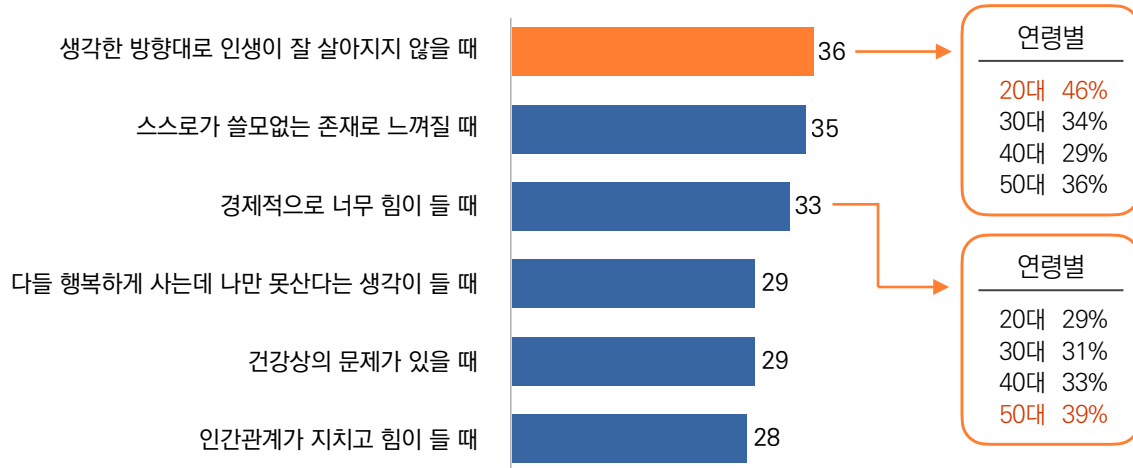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 2023.07. (전국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7.05.~07.07.)

*4점 척도로 '매우 자주+이따금씩 생각', '전혀+별로 생각하지 않음' 비율임.

죽음 생각 이유, '인생이 안 풀려서/스스로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

-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자들에게 그 이유에 관해 물은 결과, '생각한 방향대로 인생이 잘 살아지지 않을 때',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 때' 등이 비슷하게 높았다. 대체로 자신의 조건·능력에 대한 결핍을 느낄 때, 또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죽음까지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생각한 방향대로 인생이 잘 살아지지 않을 때'는 20대가 46%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 때'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 (죽음에 대한 생각 경험자, 중복응답,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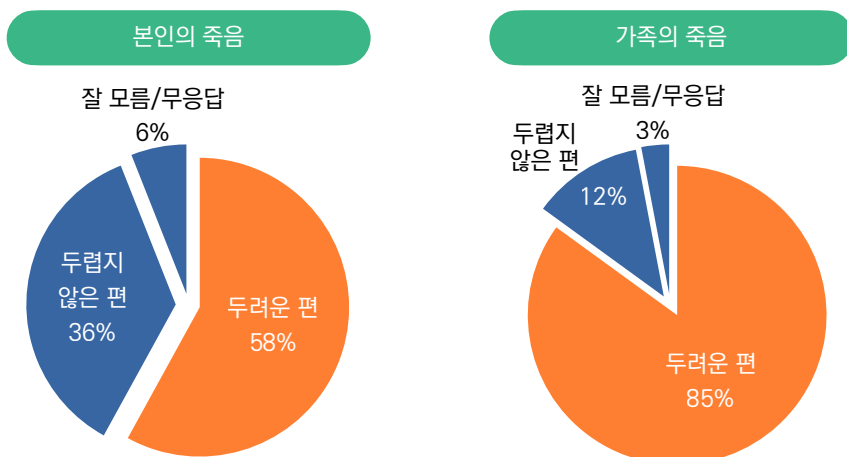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 2023.07. (전국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7.05.~07.07.)

본인의 죽음보다 가족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훨씬 커!

- '본인의 죽음'과 '가족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각각 물었다. 그 결과,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운 편이란 응답이 58%인 반면, 가족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85%로, 자신보다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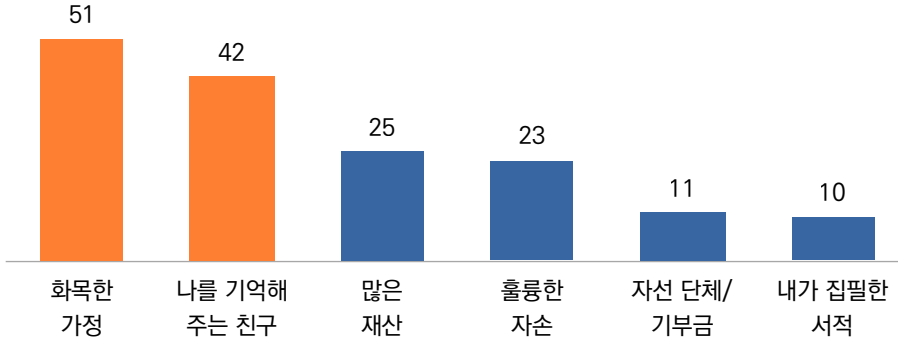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 2023.07. (전국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7.05.~07.07.)

*4점 척도

죽은 후 남기고 싶은 것, ‘화목한 가정’ 51%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다. 후세에 명성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 중 하나인데 실제 우리 국민이 죽은 후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1위는 ‘화목한 가정’(51%)이었고, 다음으로 ‘나를 기억해 주는 친구’(42%), ‘많은 재산’(25%), ‘훌륭한 자손’(23%) 등의 순이었다. 재산(3위)보다는 화목한 가정(1위)과 친구(2위)를 더 높게 꼽은 점이 주목된다.

[그림] 죽은 후 남기고 싶은 것 (일반 국민, 중복 응답, 상위 6위, %)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 2023.07. (전국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7.05.~07.07.)

이번호 요약

1. 한국 사회, '우울'이라는 어두운 사회적 환경에 영향받고 있다

- 한국인 중 '요즘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 즉 우울감 속에 있다는 응답이 무려 36%로 국민 3명 중 1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 더군다나 국민 대다수(85%)는 '앞으로 우리 사회 우울증 겪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우울증과 자살은 매우 연관성이 높는데, 우리 국민 중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무려 15%나 돼 6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2. 한국인, 인생 최종 열매를 '화목한 가정'으로 인식

- 우리 국민 47%가 '요즘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 또는 '인생이 안 풀린다고 느낄 때' 죽음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죽은 후 남기고 싶은 것으로 '화목한 가정'을 가장 많이 응답해 인생의 최종 열매를 화목한 가정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나, 우울증일까? \(EBS 컬렉션 - 사이언스\)](#)
- ▶ [\[기사\] 칼빈주의 설교가 찰스 스펀전의 우울증 \(리폼드뉴스\)](#)
- ▶ [\[서적\] 죽음과 죽어감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 청미\)](#)

관련 성경 구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다 (시 34 : 18)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 42:11)

목회 적용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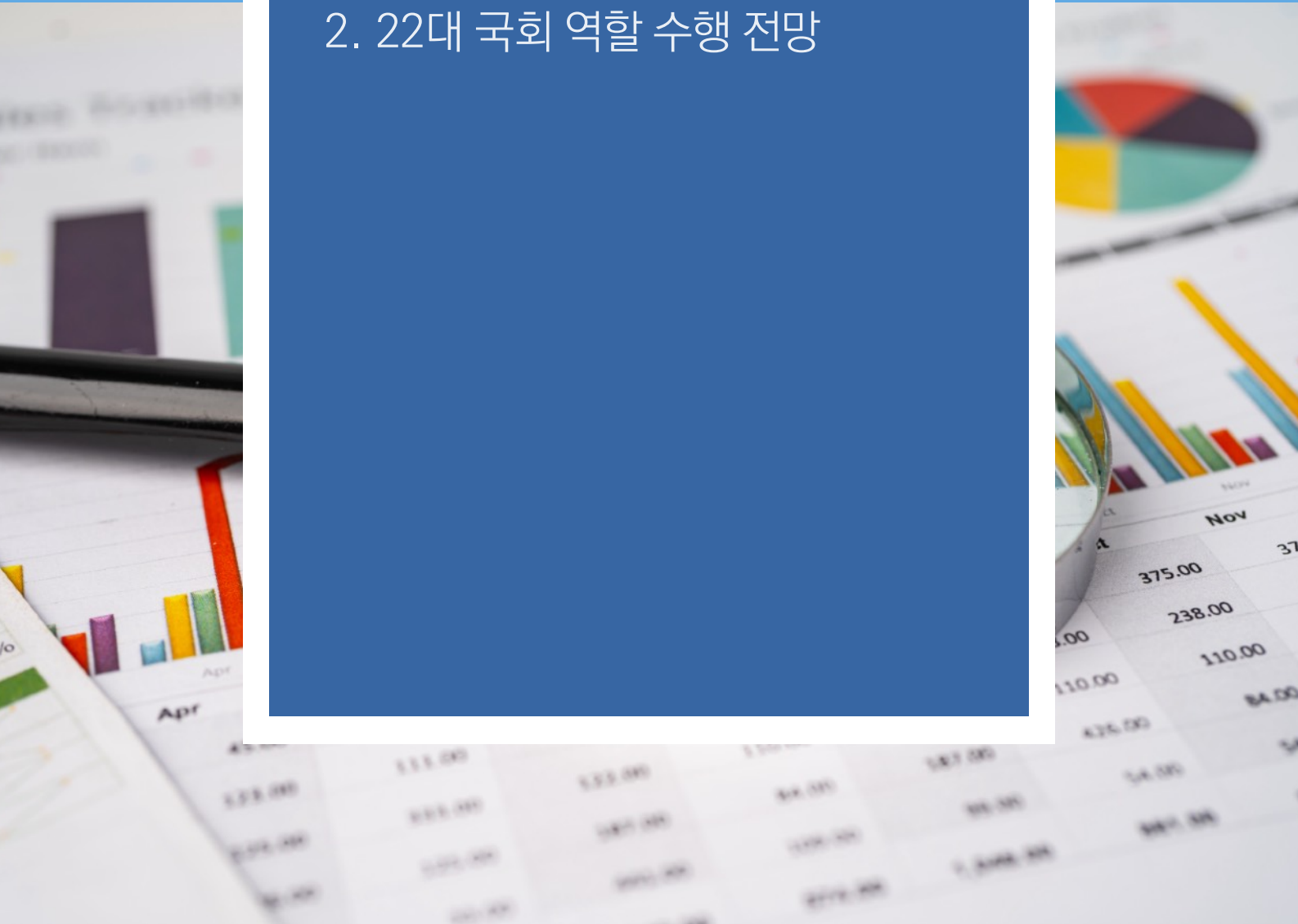
우울감은 건강 약화, 무력감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도 있지만 빈곤, 열등감, 관계 등 사회적인 문제에도 원인이 있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국민의 우울감과 자살 생각, 죽음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교회 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정신적인 질병은 육체적 질병과 달리 잘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교회는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을 공식적으로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상담 기구를 운영하고 한편으로 소그룹 시스템을 강화해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주의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목회자 자신이 상담 전문가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임신중단(낙태) 인식
2. 22대 국회 역할 수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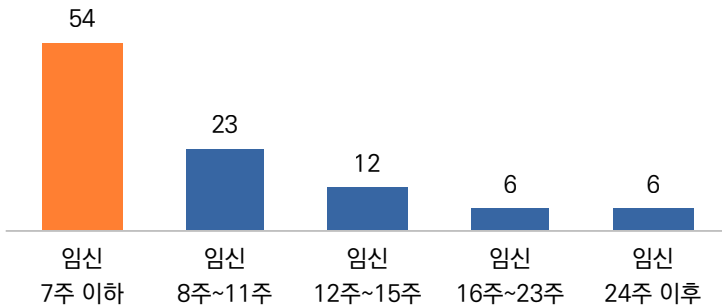




[한국인의 임신중단(낙태) 인식] 우리 국민 절반 이상, '임신 7주 이하' 배아도 생명이다!

- '낙태'라는 단어의 의학적 정식 명칭은 '임신 중절'이며, '낙태'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고려하여 '임신 중지', '임신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되었으나 이후 5년이 지나도 임신중단에 관한 법령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모자보건법 상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 임신중단을 허용한다는 법조문이 존재해 여전히 혼란이 있는 상태이다. 최근 임신중단에 대한 국민 인식 결과(한국리서치)가 발표됐는데 이를 살펴본다.
- 임신 단계 중 어느 시기부터 태아를 생명체로 볼 수 있는지를 묻은 결과, '임신 7주 이하'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54%)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 7주 이하면 태아가 배아* 상태로, 아직 장기 등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단계일지라도 국민들은 생명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오히려 모체 밖 생존이 가능해지는 시점인 24주 이후 태아를 생명체로 본 경우는 6%에 그쳤다.

[그림] 태아를 생명으로 볼 수 있는 시기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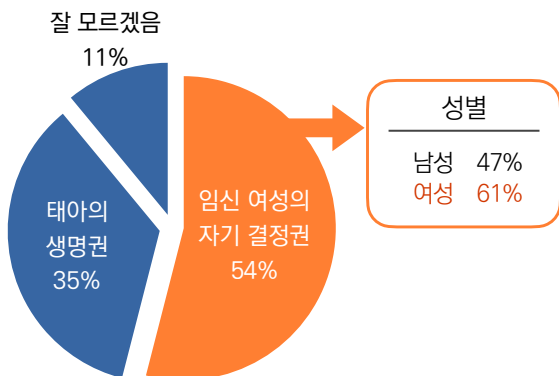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조사', 2024.05.22.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3.08.~03.11.)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후부터 8~9주까지의 상태

한국 여성 10명 중 6명, '태아의 생명권'보다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

- 임신중단과 관련해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간의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 개인적 신념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54%로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35%)는 입장보다 더 높았는데, 성별로는 여성(61%)이 남성(47%) 대비 훨씬 더 높았다.

[그림] 임신중단에 관한 우선순위 인식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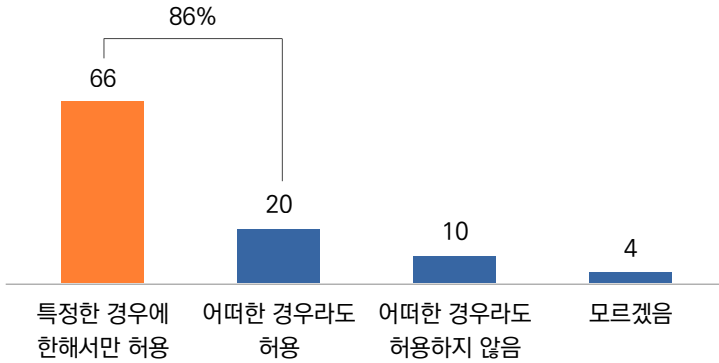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조사', 2024.05.22.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3.08.~03.11.)

우리 국민 대다수, 임신중단 허용 찬성!

- 임신중단을 어떤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묻은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2명(66%)은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20%)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하지 않음'(10%)보다 2배 더 높았다. 모든 경우 허용과 조건부 허용 의견을 묶으면 무려 86%인 대다수 국민이 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림] 임신중단의 허용 범위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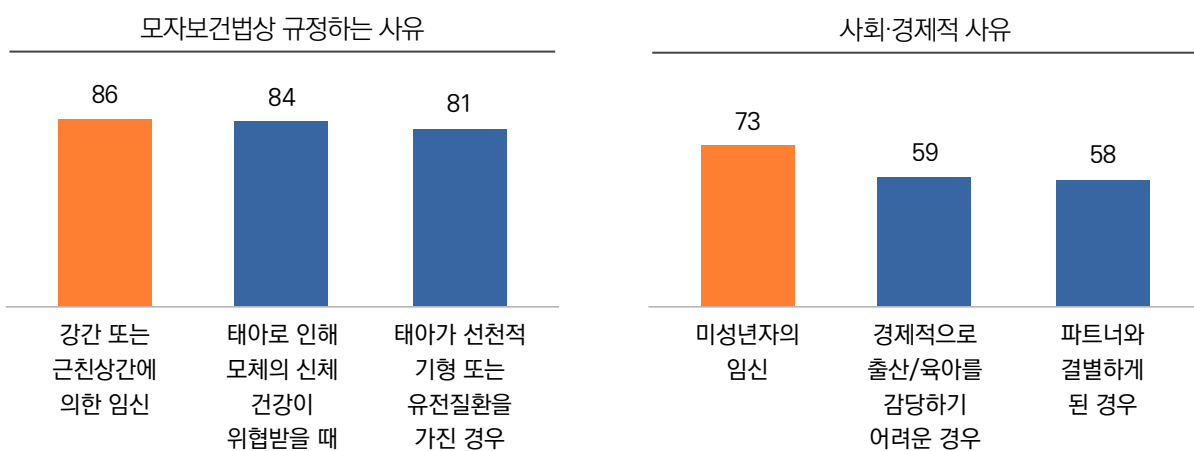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조사', 2024.05.22.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3.08.~03.11.)

경제적으로 키우기 어려운 경우 임신중단 관철아, 59%!

-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임신중단을 허용해야 할까? 법적 임신중단이 가능한 사유를 제시하고, 임신중단 허용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기존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한 임신중단은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86%)', '태아로 인해 모체의 신체 건강이 위협받을 때(84%)', '태아가 선천적 기형 또는 유전질환을 가진 경우(81%)' 등이 해당 사유이다.
-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써 임신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임신'(73%)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으로 출산/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59%), '파트너와 결별하게 된 경우'(58%) 등에서 절반 이상이 임신중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실상 생명보다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세태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림] 상황별 임신중단 허용 범위* (일반 국민, %)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조사', 2024.05.22.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3.08.~0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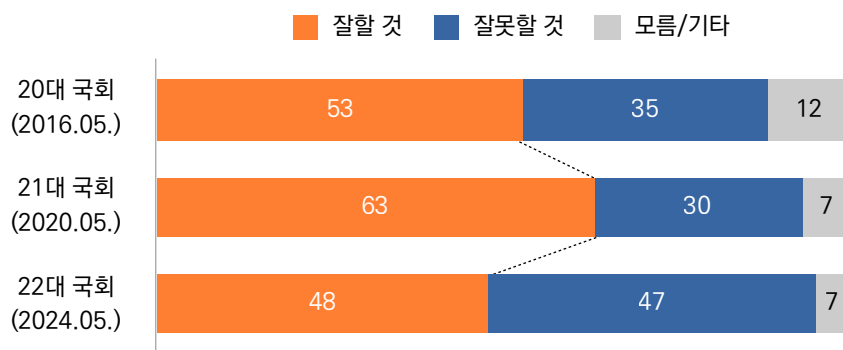
*'전면 허용 + 23주 이내 허용' 비율



[22대 국회 역할 수행 전망] 22대 국회 역할 수행, 21대보다 어렵게 전망!

- 지난 5월 30일 새로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원(院) 구성 관련 여야 간 정면충돌로 극단적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은 어떠할까?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국회 역할 수행 전망을 물었다(한국갤럽). 그 결과, '잘할 것' 48%, '잘못할 것' 45%로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렸다.
- 직전인 21대(2020년)와 20대(2016년) 국회 임기 시작 직전 조사했던 결과와 비교해보면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개원 직전 조사(2020년)에서는 '잘할 것' 63%, 20대 국회(2016년)는 '잘할 것' 53%였다.

[그림] 국회 역할 수행 전망 (20~22대 유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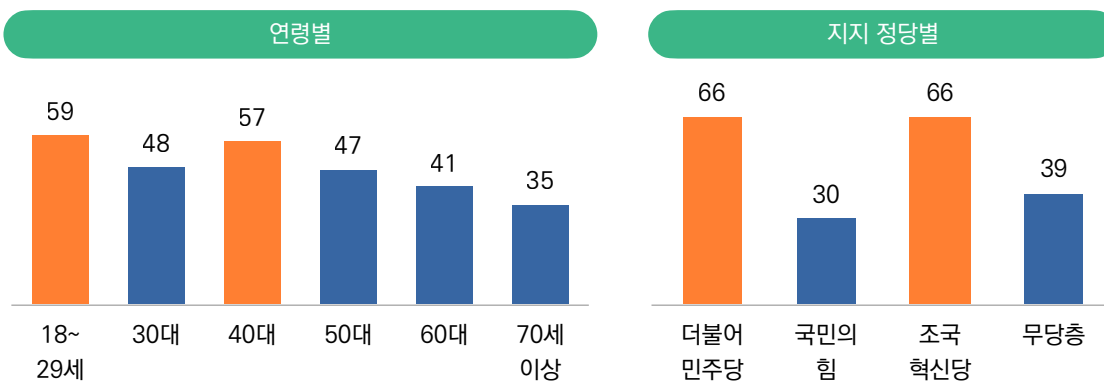


※출처: 갤럽리포트, '데일리 오피니언 제 585호 - 정당별 호감도, 22대 국회 전망', 2024.05.30.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전화조사, 2024.05.28.~05.30.)

22대 국회 향한 기대, 20대와 40대 가장 높아!

- 22대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잘할 것' 응답률)은 20대(59%)와 40대(57%)가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66%)과 '조국혁신당'(66%) 등 야당 지지자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22대 국회 역할 수행 '잘할 것'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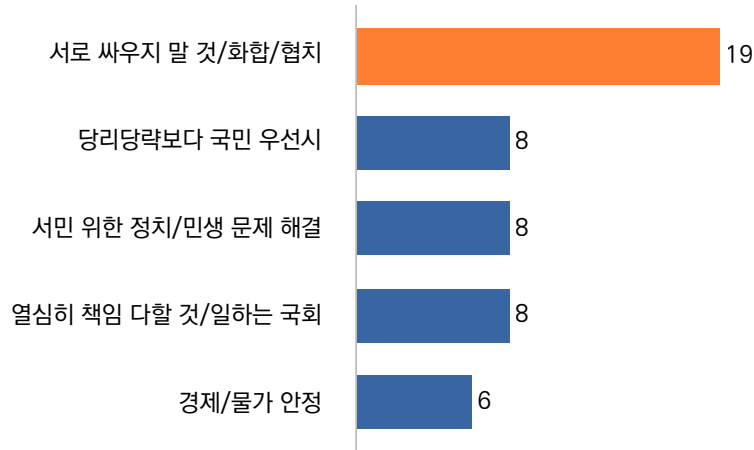


※출처: 갤럽리포트, '데일리 오피니언 제 585호 - 정당별 호감도, 22대 국회 전망', 2024.05.30.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전화조사, 2024.05.28.~05.30.)

22대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 ‘서로 싸우지 말 것!’

- 국민(유권자)들이 22대 국회에 당부하는 말로는 ‘서로 싸우지 말 것/화합/협치’(19%)를 주문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당리당락보다는 국민 우선시’, ‘서민 위한 정치/민생 문제 해결’, ‘열심히 책임 다할 것/일하는 국회’가 각각 8%, 경제/물가 안정 6% 등의 순이었다. 이점은 국민적 기대와 달리 시작부터 싸움으로 일관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대 국회에 당부하는 말 (유권자, 자유응답, 상위 5위, %)



※출처 : 갤럽리포트, '데일리 오피니언 제 585호 - 정당별 호감도, 22대 국회 전망', 2024.05.30.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전화조사, 2024.05.28. ~05.30.)

목사 후보생 감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위원

줄어드는 목사 후보생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양대 장로교단인 예장 합동과 통합의 올해 강도사·목사 고시 응시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 교단의 강도사고시 응시자는 5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합 교단의 목사고시 응시생 수도 올해 처음으로 1,000명이 무너졌고 5년 전에 비해 30% 정도가 감소하였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 교단의 주요 신학교들에는 지원자가 몰렸고, 신대원 과정에 입학하려면 재수는 물론 3수, 4수가 기본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나, 지금은 정원을 채우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상황이 역전되었다. 일부 교단의 경우 서울에 있는 캠퍼스조차 정원 미달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자 지방 신학교들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신학교들의 입학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지방 거주자들은 지방 신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서울과 수도권 신학교의 경쟁률이 떨어지자, 지방 거주자들도 서울과 수도권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지방 신학교들은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신대원에서 우수한 지원자 수가 줄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몇 년째 반복되면서, 최근에는 수준 미달의 학생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신학교마다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있는 젊은 신학도들은 서울로 진학을 하면서 지방 신학교는 낮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려는 만학도들이 줄을 잇는 형편이다. 나이 많은 신학생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안수받는 목회자가 고령화되고 결국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젊은 나이에 목회에 대한 소명과 열정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목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신학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있다.

목사 후보생은 왜 감소할까?

목사 후보생이 줄어드는 이유는 매우 복잡적이다. 인구학 측면에서 보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큰 이유가 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출산율 급감으로 청소년 인구가 줄고 있으므로 대학 지원자 자체가 크게 줄었다. 이미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정점을 찍은 후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특히 학령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입 경쟁도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지방 대학 중에는 폐교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것은 신학교에 진학할 학령 인구 역시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하 생략)

*위 글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좋은나무)'에서 발췌한 것으로 칼럼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emk.org/3627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가정·국가경제 및 안보에 대한 인식](#)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6.4.](#)

사회 일반

[1인당 국민총소득 사상 첫 일본 추월…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6위](#)

[조선일보_2024.6.5.](#)

[이번생에 내집마련 가능할까…“20대, 저축만으로 서울아파트 사려면 86.4년”](#)

[매일경제_2024.6.3.](#)

[AI 답변에 화난 고객, 인간상담사 감정노동은 더 심해졌다](#)

[한겨레_2024.6.5.](#)

[슈퍼·편의점 없는 행정리 73.5%…31%는 읍내 나가도 없어](#)

[한겨레_2024.6.7.](#)

[서툰 한국말로 피해 호소 막막한데…‘잠재적 범죄자’라노](#)

[한겨레_2024.6.10.](#)

[외국인환자 60만명 돌파](#)

[데이터숨_2024.5.30.](#)

경제·기업

[이직자 셋 중 하나는 월급 적어졌다…나이 많을수록 더 그랬다](#)

[중앙일보_2024.6.5.](#)

["49세도 청년" 베테랑 신참 시대…'황태·동태' 조기퇴직은 여전](#)

[중앙일보_2024.6.4.](#)

["직장인 42.5% '주 최대 근로시간 52→48시간으로 줄여야' 생각"](#)

[연합뉴스_2024.6.9.](#)

[“가게 월세는커녕 이자도 못내” 자영업자 연체율 9년만에 최고](#)

[동아일보_2024.6.10.](#)

청소년·청년·아동

[아동 비만을 5년 새 4배 넘게 증가…정신건강 고위험군 늘어](#)

[연합뉴스_2024.6.6.](#)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국제 · 환경

[베이비부머 넘어 대세로…우린 ‘주머’다](#)

매일경제_2024.5.31.

[기후변화 경각심, 약해지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6.4.

[회사 눈치보는 M세대… 휴가 신청 않고 쉬는 ‘조용한 휴가’ 많아져](#)

동아일보_2024.5.31.

[우크라 국민 10명 중 4명 “젤렌스키 정권서 민주주의 후퇴”](#)

동아일보_2024.6.5.

건강

[기억력 감퇴 10명 중 7명은 관리 안 해… 병원 가야하는 증상?](#)

헬스조선_2024.6.1.

[기침 100일 간다는 ‘백일해’ 환자, 지난해보다 105배 늘어](#)

한겨레_2024.6.7.

기독교 · 종교

[2024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6.5.

[다음세대가 직접 밝히는 ‘신앙교육 가장 효과 좋은 영역은…’](#)

더미션(국민일보)_2024.6.6.

[미 기독교인 10명중 7명…“교도소 재소자에 편지쓰고파”](#)

국민일보_2024.5.27.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 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벤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영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재)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김정수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3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